

문주란 자생지 토끼섬

생태계의 보고인 제주에서는 특별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토끼섬에서 자라는 문주란과 해녀콩은 어려운 환경을 견뎌야 했던 해녀들의 슬픈 삶의 이야기와 닮아 있다.



문주란로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433-1 ~ 구좌읍 세화리 357-2(약 1.6km)

별방길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805-1 ~ 구좌읍 하도리 1951-1(약 1.2km)

하도서문길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913-1 ~ 구좌읍 하도리 1890-3(약 0.5km)

상도로 |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334-2 ~ 구좌읍 상도리 1382(약 5.9km)

면수길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309-3 ~ 구좌읍 하도리 3193-6(약 0.6km)

하도15길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산21-5 ~ 구좌읍 하도리 53-2(약 1.5km)

종달로 |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1671-3 ~ 구좌읍 종달리 2013-1(약 1km)

종달논길 |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1113-3 ~ 구좌읍 종달리 724-1(약 1.3km)

종달향길 |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78-1 ~ 구좌읍 종달리 486-12(약 0.4km)

문주란로 | 문주란 자생지



토끼섬

문주란로는 천연기념물인 문주란(文珠蘭) 자생지의 의미를 부여한 이름이다. 하도리 동쪽 바다에 바위와 모래로 되어 있는 토끼섬이 있는데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문주란 자생지라고 한다.

문주란은 토끼섬의 모래로 된 땅에서 자란다. 이름만 봐서는 난의 한 종류일 것 같은 문주란은 사실 수선화과에 속하는 식물이라고 한다.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하얀 꽃잎이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토끼섬은 예전에 문주란의 이름을 따서 난도(蘭島)라고 불렸었다. 그러다 마을 사람 중 한 분이 섬에 토끼를 풀어놓고 길렀다고 해서 토끼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토끼섬에는 해녀콩도 자란다. 해녀콩은 해녀들이 먹었던 콩이어서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 해녀들에게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물질을 쉴 수 없었기도 하거니와 집안의 형편 상 가족이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성이 있는 해녀콩을 삶아 먹고 아이를 지우려고 했다. 그러다 너무 많이 먹어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한다. 토끼섬의 모래밭에서 자라는 문주란과 해녀콩은 어려운 환경을 묵묵히 견뎌낸 해녀들의 삶과 많이 닮아있다.

별방길 / 하도서문길 | 별방진

별방길은 하도리에 있었던 별방진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별방진은 제주도의 동쪽으로 침입하는 왜적을 막기 위해 세워진 군사시설이다. 옛날 왜적이 우도에 침입을 하자 섬 동쪽의 방어를 위해 별방진을 설치했다. 하도리 해안의 복잡한 해안선은 왜적이 배를 대기 쉬운 환경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을 배치해서 혹시나 모를 전쟁에 대비했다. <탐라순력도>의 별방조점과 별방시사 편에는 당시 별방진의 모습과 성 내에 배치된 건물들, 그리고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별방진은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옛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현재는 일부가 복원되어 있다.

별방길과 만나는 **하도서문길**은 별방진의 서문이 있었던 곳에 형성된 서문마을에서 따온 이름이다. 별방진에는 동, 서, 남쪽에 문이 있었는데 서문 쪽에 위치한 마을을 서문동이라 불렀다. 이 마을은 별방진이 세워진 이후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형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도로/면수길 | 상도리와 하도리

상도로는 상도리 마을의 중심도로이다. 이름에서 보듯이 상도리와 하도리는 원래 하나의 마을이었다. 옛 이름은 도의여마을이라고 한다.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토끼섬 일대의 포구를 도의여라고 불렀다. <동국여지승람>에 도의탄포(道衣灘浦)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15세기 초반에 도의여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별방진이 세워진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점점 커지자 17세기에 이르러 웃도의여마을과 알도의여마을로 나뉘어졌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상도리와 하도리가 되었다고 전한다.

상도리는 중산간마을을 이루고, 하도리는 바닷가 해안마을을 이룬다. 하도리의 마을 중 **면수길**이 지나는 면수마을은 논물통이라는 물이 있던 곳이어서 논물동네로 불리다 한자로 표기하면서 면수동(面水洞)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 논물은 매워져서 찾아볼 수 없다.

하도15길 | 하도리 철새도래지

하도리의 창흥동에는 철새도래지가 있다. **하도15길**이 이곳을 지난다. 철새도래지는 바다에서 섬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고, 둘레에 제방둑이 있어 물결이 잔잔하다. 그래서 새들이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겨울철이 되면 30여 종에 이르는 철새들이 찾아오는 이곳에서는 백로와 해오라기, 저어새, 가마우지, 기러기, 고니 등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만날 수 있다. 철새들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 이곳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탐조대도 설치되어 있다. 겨울철에는 철새들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철새도래지 인근에는 탕탕하게 물이 솟아난다고 하는 탕탕물이 있다. 바닥까지 보이는 투명한 물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

종달로 / 종달논길 / 종달항길 | 종달리

종달로는 종달리의 중심도로이다. 제주시의 동쪽 마지막 마을인 종달리(終達里)는 '통달함을 마쳤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종달리는 제주도의 꼬리에 해당한다고 해서 붙여졌다 고도 하고, 조선시대 제주목의 마지막 마을이라 해서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는 설이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중국의 법사인 호종단이 수맥을 끊으러 종달리로 들어왔는데, 마을 이름이 자신의 이름과 똑같자 화가나 제일 먼저 수맥을 끊어버렸다고 한다.



소금밭 터

종달리의 **종달논길**이 지나는 곳에는 과거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있었다. 20세기 초만 해도 소금을 만들어내는 가마가 40개 넘게 있었고, 16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염전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방 후에 육지에서 소금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염전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염전이 있던 곳은 논으로 탈바꿈하여 새롭게 거듭났지만,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않고 터만 남아있다.

지미봉의 동쪽으로 가다보면 **종달항길**이 나온다. 이 길은 주변에 있는 종달항을 반영한 이름이다. 우도를 찾아가려면 대부분 성산항을 이용하지만 종달항에서도 우도행 배가 다닌다. 성산항에 비해 자주 다니지는 않지만 북새통을 이루는 사람들을 피해 우도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